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지정 10개 기관 힘 모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현대차그룹,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8일 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기본계획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10개 기관 공동대응

도·새만금청·현대차 등 TF 출범
현대차·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업유치·기반 역할 분담
선도산단 지정 기본계획 구체화

전북도가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산업용지,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연계해 RE100 산업거점 조성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는 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현대차그룹,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기본계획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새만금개발청이 마련한 RE100 산단 종합계획을 토대로 전북도가 추진 중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선도산단 지정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과 전력 수요를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연계해 실질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구축 등 산단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현대차그룹,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 공모 대응을 총괄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종합계획과 개발계획 연계를 맡는다. 군산시는 기업유치와 행정지원, 현대차그룹은 전력수요 공유와 재생에너지 공급모델 및 특례 발굴에 협력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전력망과 산업용지, 재생에너지 등 기반시설 분야를 지원하고,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는 정책·제도 분석과 산업 연계방안 마련을 뒷받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RE100 관련 특별법

안과 TF 운영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현안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앞으로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선도산단 지정요건 및 대상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공급방안 ▲기업 전력수요 및 입주기업 유치계획 ▲전력계통 ▲기반시설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장정철 기자

정읍시의회, 국외연수비 반납 “불필요한 예산 줄여 민생 집중”



<사진=정읍시의회>

“경기침체 속 시민 고통 분담”
의원 전원 연수 미실시 뜻 모아
반납 예산 민생·지역현안 활용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의회가 예산을 들

여 연수를 떠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데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편성된 연수예산 7천 6백 5십만원은 전액 반납 처리되며, 향후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복형 의장은 “모든 시민이 폭염과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의회가 먼저 민생 살피기에 집중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4억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30곳 환경 개선
2012년부터 사회공헌사업 이어와
누적 230개소 12억5천만원 지원

전북도는 8일 도청에서 전북은행이 도내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학습·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2026 JB희망의 공부방’ 후원금 4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박준원 전북은행장, 조인성 부행장보, 정영민 도청지점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공간을 조성하고,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은 총 4억 원 규모로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과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등 총 3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책상·의자·책장·도서 등 학습공간 조성 ▲도배·장판·LED 조명·블라인드 등 생활환경 개선 ▲소형가전·싱크대·화장실 등 돌봄환경 개선 등이다. 시설별 여건과 필요사항을 고려해 학습·생활·돌봄공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군 담당부서와 협력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전북은

행이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JB희망의 공부방’은 전북은행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230개소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28개소에 3억 원, 2025년에는 35개소에 4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습·생활·돌봄공간의 이용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돌봄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숙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청문회 거쳐야”

“인사검증 체계 갖추고 강화할 것”
민주당내 김승원 엄호 분위기…
용 후보자는 지명철회론 확산

청와대가 ‘신약로비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중 특혜 의혹’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청문회까지는 갈 것으로 보인다.

7일(파리 현지시간) 중앙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김승원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가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용 후보자와 관련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인사검증 부실 비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함이 없도록 인사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지명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의회 행정위, 출연기관 경영평가 ‘부실’ 질타

지난해 없던 라등급 올해 3곳 등장
평가지표·배점 변경사항 공개 요구
전북연구단연퇴직관리부실도 지적
임금·임차료·성과급 등 개선책 주문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8일 2026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2025년 경영평가에서 없었던 라등급 기관이 올해 3개 기관으로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평가체계가 개선

된 측면도 있지만 그간의 평가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경영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현(부안) 부위원장은 올해 경영평가 지표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지표의

신실·삭제와 배점·평가기준 변경사항 비교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표준편람 반영 여부와 사업지표의 목표수준 및

난이도 설정 근거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강태창(군산1) 의원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강(고창2) 의원은 경영시스템 지표 중 재무관리 분야 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기관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지표인만큼 기관의 단일한 인식을 개선하고 본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경만(전주12) 의원은 최근 전북연구원 감사에서 당면퇴직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적발되기 전까지 해당 직원의 승진과 국외연수 등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관리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과 연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와 출연기관 간 업무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있는지 점검하고 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완주1) 의원은 도 출연기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저연차 직원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임금 격차를 분

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6개 출자·출연기관에 상당한 임차료가 도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기관의 공간 활용과 도내 시·군으로 이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차료 절감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우선한 기관 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익산2)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행정안전부 지침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일부 하위등급에 더 높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현행체계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상·하위 등급 간 보상 차등을 강화해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김승원 “식약처장 전화 한번…부정청탁 없었다”

“코로나 치료제 심사 처리 취지 양수진씨와는 친한 후배 맞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일 ‘독약 로비’ 의혹과 관련 “(식약처장에게) 전화 딱 한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수진씨의 로비 청탁에 따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 이같이 딱 한번 전화를 했으며 이같이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며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김승원 후보자

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런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기소유예)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수진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친한 후배로서 지내는 것은 맞다”면서도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양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농업 3대 기금 통합 ‘농업발전기금법’ 발의

기금 간 재원 탄력운용체계 구축
농가소득·농업 경쟁력 재정 지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농업 분야의 대표적 3대 기금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금 재정의 운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농업발전기금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관련 3개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농업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률에 따라 운용되어 온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피해보전,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개별 기금 단위로 재원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기금 간 여유자금의 신속적 상호 운용과 효율적 집행에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특정 기금은 재원이 부족하여 차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기금은 여유자금이 묶여 있는 등 재정 경직성이 심각했고, 대규모 재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상화, 농촌 초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I) 및 디지털 농업 혁신 등 급변



윤준병 의원

하는 농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기금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신설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을 명시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조절 및 유통시설 현대화, △FTA 피해보전 직불 및 생산자단체 지원, △농지매매·임대차 및 청년농·경영회생 농지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핵심 농정 사업 전반에 재정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금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농업발전기금법안은 분절되었던 3대 기금을 하나로 묶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농정의 본질적 목표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중차대한 농업재정 개혁”이라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한국쌀전업농 전북연합회, 추석맞이 쌀 100포 기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전달
지난해 이어 추석 나눔 상생 실천

전북도는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추석을 맞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쌀 100포(10kg, 3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성의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탁된 쌀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난해 연말 쌀 나눔에 이어 올해 추석에도 기탁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쌀을 이웃과 나누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쌀 소비 촉진에 함께 힘을 보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성의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이번 나눔이 추석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이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 스마트팜 청년농 9기 출발…전국 최고 경쟁률

243명 지원 47대 1 경쟁률 기록
52명 선발…전북 청년 63.5%

전북도는 8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9기 교육생 52명을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이론교육부터 현장실습, 농장 경영까지 단계별 교육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을 갖춘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9기 교육생 모집에는 243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

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전북 김제·경북 상주·경남 밀양·전남 고흥) 가운데 9회 연속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선발된 교육생 52명 가운데 전북지역 청년은 33명(63.5%), 도의 청년은 19명(36.5%)이다. 도는 도내 청년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 청년들이 전북에서 교육받고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20개월로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로 진행된다.

입문교육에서는 스마트팜 시설관리와 작물재배, 경영관리 등 기초역량을 익힌

다. 이후 교육형 실습을 통해 실제 농장에서 작물재배와 스마트팜 운영 전반을 경험하고, 경영형 실습에서는 직접 영농계획을 수립해 재배부터 수확·출하까지 농장 경영 전 과정을 배운다.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교육생들의 실제 농업 진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1~6기 수료생 248명 가운데 225명(91%)이 농업 분야에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 156명이 스마트팜 영농에 정착했다.

도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생들이 교육과 실습에서 나아가 실제 창업과 영농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재관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



원장은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교육생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타면 착, 안전도착

올바른 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세요!

차 타면 꼭 지켜야 할 안전띠 안전수칙

택시 탑승시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



어린이도

안전벨트 필수

착용해야 해요!



낮은 속도에서도

뒷좌석에도,

안전띠 꼭 착용 해 주세요!



道, 한가위 맞아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바지락·민물장어 등 100여 개 품목 최대 50% 할인 판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청 서편광장 일원에서 전북 농수산물 한가위 큰장터와 연계해 수산물 직거래장터‘어(漁)서움쇼(show)’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を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가공업체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는 도내 9개 시·군의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30곳이 참여해 바지락과 새우, 민물장어, 박대, 꽃게살, 찢갈류, 조미김, 추어탕 및 수산가공품 등 100여 개 품목을 선보인다.

특히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가격대별 세트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현장 할인 혜택도 마련된다. 방문객에

게는 선착순으로 5천원권 할인쿠폰을 하루 1인 1매 제공하며, 구매금액 4만원당 5천원권 쿠폰 1매를 추가 지급한다. 추가 쿠폰은 최대 3매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업체 가운데 12곳은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지정업체다. 해가람은 HACCP이나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 국가공인 품질인증과 도내 수산물 취급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품질이 검증된 지역 수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도는 이번 직거래장터가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지역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

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가공업체에는 제품 홍보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직거래장터가 도민들에게 신선하고 우수한 전북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어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농협 군산시지부—군산농협, 농심천심 실천

농촌왕진버스 운영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 NH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범석), 농협(조합장 박형기)은 주민 200여명 대상으로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산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문춘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범석 NH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장,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병의원, 약국 등의 료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한방 진료, 구강 검사, 시력 검사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실의 사업이다. 이번 군산농협 왕진버스에는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다비치 안경수술점, 이정아 헤어에서 참여해 한방 진료, 구강검사, 검안 및 돋보기 등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미용서비스(헤어커트), 떡과 발효빵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에 진행됐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고령·취약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형기 조합장은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지부장은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이 지역사회에 따뜻하게 확산 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촌 왕진버스와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 벼, 고순도 우량종자 생산 ‘순항’

철저한 포장 관리로 생육상태 매우 양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지난 8일 종자사업소 벼 종자 생산포장에서 국립종자원 종자검사팀이 벼 원원종원종 생산포장에 대한 포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벼 종자의 품종 고유 특성과 순도를 확인하고 병해충 발생 여부, 등숙기 생육상태, 이품종 혼입 여부 등 채종포 관리 전반을 점검해 고순도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조답’을 포함한 원원종 9 품종(72a)과 ‘신동진1’을 포함한 원종 8 품종(1,180a) 등 총 17개 품종, 12.5ha 규모의 벼 종자 생산포장이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사팀은 채종포를 직접 순회하며 품종 고유 특성 유지 여부, 이품종 혼입 및 제거 상태, 도열병

등 후기 병해충 발생 여부, 등숙기 생육상태, 재배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단기간 집중호우 등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벼 생육과 포장관리에 어려움이 컸지만, 종자사업소는 생육단계별 예상과 이형주·이품종 제거, 병해충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채종포 관리에 힘썼다.

그 결과 국립종자원 포장검사서서 품종 고유 특성과 생육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도 채종포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종자사업소는 지난 5월 13일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신동진1’ 등 벼 원원종·원종 54톤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포장검사를 마친 종자는 수확 후 건조·정선과 품질검사 등을 거쳐 내년도 보급종 생산에 단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전북농기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김상영 팀장은 “포장 전반의 품종 고유 특성 유지와 생육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며, “종자의 생명은 순도에 있는 만큼, 수확 직전까지 이품종 제거와 후기 병해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서경원 소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철저한 포장 관리로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유지했다”며, “수확부터 발아검정까지 꼼꼼히 관리해 고순도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데이터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 찾는다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내달 22일까지 참가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과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도는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데이터인심구역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 속 불편이나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데이터인심구역 지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다.

대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인심구역’에서 안전하게 열람·분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해결 방안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한다.

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데이터인심구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사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내달 28~29일 서면·기술평가를 통해 31개 팀 또는 개인을 선발한 뒤, 11월 18~19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수상을 선정한다. 결과는 11월 25일, 시상식과 성과발표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2,750만 원으로 대상 1점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9점에는 각 200만 원, 우수상 5점에는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청소년 참여 확대

를 위한 특별상도 마련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구성된 팀 가운데 본상을 받지 못했지만 일정 심사기준을 충족한 5개 팀을 선정해 각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한다.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나이스지니데이터의 2027년 채용 시 서류전형 합격 특전도 제공된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대회가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에서 활용해 생활과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데이터와 AI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고창군,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성황

농민 권익 증진과 농업·농촌 미래 모색

고창군이 8일 선운사 다목적광장에서 ‘2026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가 전북지역 농민회원과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주최하고 고창군농민회가 주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사장, 조경희 전북도연맹 이사장, 이덕진 고창군농민회장, 각 시·군 농민회장, 주요 내외빈 등이 참석해 전북 13개 시·군 농민회원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농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진대회는 농자재와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북지역 농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창에서 전북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민의 권익과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었다.

고창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그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아내겠다”며 “생산비 격차를 줄이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며, 재해와 일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를



<사진=고창군>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권역별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 김치원료공급단지 및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농업현장에서 제갈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시 NH농협배 조합원 파크골프대회 ‘성료’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화합

익산시 농축협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2026 익산시 NH농협배 조합원 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익산시 농축협조합운영협의회(회장 김학림 조합장)와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진현욱)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7일 익산 이리로파크골프장에서 열렸으며, 익산시 농축협 조합원등 350여명이 참석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호 익산시장,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 김성훈 전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익산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에는 농축협 조합원 300여 명이 선수로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기량을 겨뤘으며, 참가자들은 파크골프를 함께 즐기며 건강을 다지는 동시에 조

합원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쟁을 넘어 농심천심(農心天心)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돼 더욱 뜻깊었다. 농심천심은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김학림 익산시 농축협조합운영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마음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역 농축협이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진현욱 NH농협 익산시지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다”며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추석 전 지원금 ‘곳간 연다’ 2(題)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남원시,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원
완주군이 8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커진 군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주민등록자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로 총 10만 877명이다. 신청일 이전 사망자와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기금기간은 10월 30일까지 초기 신청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집중 지급기간을 운영한다. 8일부터 11일까지는 읍·면의 경로당 등 640개소를 직접 찾아가 지급하고, 12일과 13일, 주말에는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에서 지급한다.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평일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세대원 지원금을 일괄 수령할 수 있으며, 세대원은 본인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세대주 위임장과 필요 신분증을 제출해 전체 세대원의 지원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완주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는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을 통한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지급 대상자 및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안내를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8월 최종 대상 16,063명을 확정하고, 9월 중순부터 73억 3천여만원의 농민공익수당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고양시 소상공인 상생 교류 ‘물꼬’

특산물·관광 홍보·판매 협력 공동사업 발굴 등 상생 협약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진)와 고양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용락)가 지난 7일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두 지역 소상공인 간 교류를 확대하고, 도·농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

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장내를 가득 채웠으며, 두 지역 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다짐하는 뜻깊은 화합의 장이 연출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물 및 관광 명소 홍보·판매 협력 △우수 상권 벤치마킹 및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류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등 4개의 주요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진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은 순창의 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용락 고양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양 지역 소상공인으로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개최될 순창군의 지역축제에도 참석해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바이오산업 현장점검…성장동력 키운다

양충모 시장, 바이오연구원 방문 운영 현황·기업 지원체계 점검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7일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을 찾아 바이오산업의 주요 기반 시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남원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주요 인프라와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현장의 의견을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연구실과 남원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 남원바이오메디칼센터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시설별 운영현황과 기업지원 기능을 점검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지역의 천연자원과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재 발굴에서 제품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바이오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 천연자원 발굴 → 효능·성분 검증 → 원료 표준화 및 등재 → 특허·기술이전 → 시험·검사 및 기업지원 → 제품 상용화·수출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연구성과가 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

업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각 단계 기능을 연계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사업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남원 바이오클러스터 전주기 지원체계의 핵심이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원 운영과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의회 혁신연대, 한농연과 현안 간담회

농촌 고령화·인력난 등 현안 논의 영농형태양광 참여기준 제안

완주군의의회 교섭단체 ‘주민혁신연대’(대표의원 윤여연)는 지난 7일 완주군의의회 회의실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회장 장상순)와 간담회를 열고 완주 농업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윤여연 의원과 이효진 의원, 무소속 임귀현 의원을 비롯해 한농연 장상순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농연의 주요 활동과 완주 농업 현장의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

련됐다. 참석자들은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농업 생산비 상승 등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한농연 측은 농업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 인상에도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여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자재 지원기준의 현실화와 축산분뇨를 활용한 퇴비의 운송·살포 지원 등 농촌순환농업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영농형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부 자본이나 형식상

농업인이 혜택을 선점하지 않도록 영농경력과 실제 농업경영 여부, 영농지 소 조건 등을 참여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작목의 변화와 대체작목 발굴, 고령농과 중소농의 대응방안, 후계·청년농업인 지원 등 완주군의 농업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여연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완주 농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전북장애인체전 결단식…8위 도전

19~21일 200명 규모 출전 게이트볼 등 14개 종목 참가

순창군은 오는 19일부터 진안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7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선수단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결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영일)가 주최한 이날 결단식에는 출전 선수와 감독, 장애인체육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대회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결의를 모았다. 행사는 출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어, 인사말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식 14종목, 시범 2종목, 전시 3종목 등 총 19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순창군은 이 중 게이트

볼, 골볼, 파크골프, 론볼 등을 비롯한 정식종목 14개 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순창군은 선수 및 감독 120명, 본부 임원 및 관계 직원 50명, 안전하고 원활한 지원을 돕는 활동보조인 30명 등 총 200명 규모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

순창군은 지난해 개최된 제19회 전북장애인체전에서 종합 9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한 단계 도약한 ‘종합 8위’ 달성을 목표로 세워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무엇보다 부상 없이 안전사고 없이 경기를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시설공단, 마을버스 ‘환승버스연애’ 기획

전국 최초 버스 로테이션 소개팅 미혼남녀 8대8 만남 참가자 모집

‘전북 도내 인구규모 4대 도시’로 도약한 완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색 행보에 나섰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은 주민들의 이동수단인 마을버스를 ‘문화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켜, 청춘남녀의 인연을 엮어주는 전국 최초의 마을버스로테이션 소개팅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층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단 차원에서 기획한 지방소멸 대응 프로젝트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환승버스연애’는 단순한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마을버스를 윤택하고 설레는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참가자들은 완주군의 대표 핫플레이스 노선을 잇는 마을버스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한편, 주요 환승정



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자리를 이동해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8:8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단 측은 참가 신청 시 제출 받은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참가자별 ‘1:1 이상형 맞춤 매칭’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마을버스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승버스연애’는 오는 10월 10일 미혼 남녀 총 16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제6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23개 읍면동 379명 2년간 활동

남원시는 8일 제6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위촉장 수여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제6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개 읍면동 총 37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23개 읍면동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6기 협의체는 지역주도·가장가까운 곳에서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찾아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위촉식에 이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위원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김석중 강사를 초빙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지역복지와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협의체의 기능과 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주도의 지역복지 실천과 효과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봉동읍 ‘만경강 한마당’ 문화로 화합 다져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최근 ‘봉동읍 만경강 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의 중심! 문화의 중심 봉동!’을 컨셉으로 지역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화합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봉동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봉동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건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의회 성중기 의장과 지역 도·군의원, 봉동읍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에서는 농악을 시작으로 줌바댄스, 고고장구, 난타 등 주민들

이 직접 참여한 공연이 진행됐으며, 1부 음악회에서는 그룹사운드 공연을 비롯해 지역가수의 통기타·색소폰 공연, 하모니카와 밸리댄스, 각설이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조건희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산업의 중심을 넘어 문화의 중심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봉동이 지역의 문화예술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성평등 실천 다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지난 7일 남원시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9월 첫째주에 지정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슬로건인 ‘모두의 성평등, 더 넓게 더 깊게’에 발맞춰 성별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이고 성평등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여성단체 회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개회사 그리고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가정과 직장, 지역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더 넓고 깊게 뿌리 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은진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증진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성마리오농장 어르신 건강 식품 기탁



김바오로 대표

순창군 풍산농공단지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농장(대표 김바오로)이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리오 프로틴 셰이크’ 1,152봉지(금3,225만 6천원 상당)를 순창군에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이번 나눔활동은 평소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온 성마리오농장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영양 보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기탁된 물품은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는 곡물 셰이크로 식사대용으로도 섭취가 가능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등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바오로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성마리오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바오로 대표는 2022년부터 매년 순창지역에 건강기능식품을 기탁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유공자’로 선정되는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봉상생강조합 추석맞이 편강 300개 후원

영농조합법인 완주봉상생강조합(대표 임희문)은 지난 8일 고산면 희망나눔가게에 편강 300개(15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이번 전달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살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된 편강은 고산면 희망나눔가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봉상생강조합은 직접 재배하거나 계약재배한 생강을 활용해 전처리·반가공 제품과 생강청, 생강가루, 편강 등 다양한 완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희문 대표는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혜수 고산면장은 “소중한 후원 물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김제 백산면지사협 사랑의 김장배추 ‘첫걸음’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고은용)가 지난 7일 백산면 일원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앞두고 김장용 배추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배추 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밭을 고르고 배추 모종을 정식했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에 심은 배추는 협의체 위원들이 앞으로 물주기와 잡초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성껏 키울 예정이다. 수확한 배추는 오는 11월 김장나눔 행사에 활용해 관내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히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의체 위원들이 배추를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부터 함께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은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를 맞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에 전달됐다.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누적 기탁액이 1천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 개최된 부안마실축제에서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얻은 기쁨과 수익을 다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나누는 뜻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36회 동리대상, 유영애 명창 수상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하는 제36회 동리대상 수상자로 판소리 명창 유영애 선생(사진)이 선정됐다.

동리대상은 판소리를 집대성한 고창 출신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1991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판소리계의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유영애 명창은 평생 판소리와 함께하며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일궈왔을 뿐 아니라, 전통 판소리의 전승과 후학 양성, 대중화와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치온 대표적인 판소리 예인이다.

유영애 명창은 1948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판

소리에 입문했다. 김성룡 선생에게 판소리의 기초를 배우고, 이후 성우향 선생에게 춘향가, 한농선 선생에게 흥보가, 조상현 선생에게 심청가를 사사하며 우리 판소리의 주요 유파와 바탕소리를 두루 익혔다.

특히 심청가를 자신의 대표 소리로 삼아 깊이 있는 성음과 탁월한 표현력으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유영애 명창의 소리는 힘 있는 하성과 중화성을 바탕으로 한 깊고 구수진 성음으로 평가받으며, 오랜 세월 무대에서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여왔다.

2001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전통 판소리의 대표적인 전승자로서 그 예술적 가치를 국가·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고창군은 이번 시상을 계기로 동리 신재효 선생이 남긴 판소리 정신을 되새기고, 전통 판소리의 계승과 발전은 물론 젊은 국악인들이 새로운 시대의 판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서해참흥어연승생산자협회 취약계층에 흥어회무침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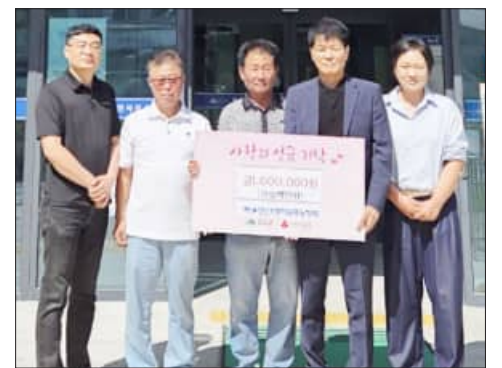
군산시 옥도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전재연)는 8일 (사)서해참흥어연승생산자협회(회장 임세종)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흥어회무침 150팩(230만 원 상당)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한어’ 참흥어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회는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참흥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통해 참흥어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기부된 흥어회무침 150팩은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수산물 기부뿐 아니라, 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지역 수산물을 통해 참흥어를 알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뜻깊은 나눔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지승길 기자



장수 계남·장안초등학교총동창회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지난 7일 계남·장안초등학교총동창회(회장 이창근)가 계남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동문들이 고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전달됐다.

계남·장안초등학교총동창회는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꾸준히 전하고 있다.

이창근 회장은 “동문들의 정성이 장수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익산 영동1동 “머리도 깎고 안부도 묻고”

매월 이미용 봉사 진행 정기적인 이웃사랑 실천

익산시 영동1동에서 지역 고령자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안부까지 살피는 따뜻한 재능 나눔이 매달 이어진다.

영동1동은 통장협의회 유부열 회장과 박윤순 부회장이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지역 경로당을 찾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봉사는 두 사람이 가진 이미

용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일 동신아파트 경로당에서 첫 봉사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매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봉사에서 두 사람은 지역 고령자들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는 한편 안부를 묻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참여자들도 가까운 경로당에서 편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단순한 머리 손질을 넘어 매달 지역 고령층의 안부를 살피고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서로를 살피는 소통의 자리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외국인주민 가족들, 환경정화 봉사활동

완주군 외국인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 ‘어울림봉사단’은 지난 6일 봉동 둔산공원 및 완주산업단지 도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구성된 ‘어울림봉사단’은 완주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50

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외국인주민 총 52명이 참여해 봉동 둔산공원과 완주산업단지 인근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특히 봉사활동이 지속되면서 초기에는 근로자 중심으로 참여했던 봉사단 활동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가수 박창근 팬들, 정읍에 고향사랑기부

팬덤 응원문화 지역 나눔으로

정읍시 홍보대사인 가수 박창근의 팬들이 2년 연속 정읍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하며 누적 기부액 805만원을 기록했다.

시는 8월 박창근 팬 모임 ‘포그니’ 전북·전남 지역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43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부한 375만 원보다 55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기부는 회원들이 자발적으

로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을 정읍의 지역 발전과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간 것이다.

회원들은 “박창근의 따뜻한 음악처럼 이웃과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자 마음을 모았다”며 “정읍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잠깐만요! 버리기전에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내집, 내점포앞에
배출



배출 시간
20시~다음날5시



검은봉투 배출 금지
투명봉투에 배출



용기안의 내용물
깨끗이비우기



부착상품 제거후
타 재질 분리배출

〈一事一言〉



꼬리 짧은 고추잠자리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고추잠자리들이 푸른 하늘을 날고 있다. 전기줄에는 제비들이 줄지어 앉아 있다. 때로는 무리를 지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앉는다. 머지않아 먼 남쪽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듯하다. 여름 내내 익숙했던 제비들이 사라지면 그 빈 하늘을 고추잠자리들이 채울 것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잠자리가 있다. 꼬리처럼 길게 뻗어 있어야 할 배가 유난히 짧아 보이는 녀석들이다. 처음에는 상처를 입었거나 우연히 생긴 한두 마리였거니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창박을 날던 잠자리를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이 여럿 보였다. 잘못 본 것인가 싶어 한참 바라보았지만 분명 예전의 기억과는 달랐다.

잠자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곤충이었다. 물속에서 살던 유충이 풀줄기를 타고 올라와 허물을 벗고, 접혀 있던 날개를 펼치고 긴 꼬리를 빼내며 성충으로 우화하는 신기한 모습도 여러 번 지켜보았다. 그래서 어린 잠자리라 꼬리가 짧았다가 나중에 길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돌연 변이인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종류인지, 달라진 생태환경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반세기가 넘도록 익숙하게 보아 온 작은 생명에게서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남는다.

그 잠자리를 바라보다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시골 아이들은 잠자리를 잡아 '잠자리 시집보내기'라는 놀이를 하곤 했다. 긴 꼬리 일부를 떼어내고 가느다란 풀줄기를 끼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시집 잘 가라'고 빌어 주던 의식이었다. 어린 마음에 나뭇 가지리를 위한 배려라고 여겼던 놀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 생명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몹쓸 짓이었을까 싶어 미안해진다. 당시에는 들판과 냇가가 놀이터였고, 잠자리와 메뚜기, 개구리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 주는 흔한 친구들이었다.

강가 모래밭에는 또 다른 신기한 생명도 있었다. 갈매기처럼 움푹 파인 작은 구덩이에 개미를 떨어뜨리면 모래 속의 개미귀신이 나타나 순식간에 끌고 들어갔다. 도망치려는 개미에게 모래를 확확 뿌리는 모습이 어린 눈에는 마냥 신기했다. 훗날 그 개미귀신이 자라 가냘프고 아름다운 명주잠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전혀 다른 생명으로 알았던 두 모습이 하나의 생애였던 것이다.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의 꼬리 짧은 잠자리도 쉽게 단정하고 싶지 않다. 어린 시절 내가 개미귀신의 다음 생애를 몰랐듯이, 지금 눈앞의 잠자리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생태의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 다만 수십 년 동안 보아 온 자연의 작은 풍경에서 전에 없던 낯설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에는 달력을 보지 않아도 계절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았다. 매미가 목청껏 울면 여름 한복판이었고, 전기줄에 모여든 제비들이 떼 지어 하늘을 맴돌기 시작하면 여름도 끝을 향해 갔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 무렵 고추잠자리가 하늘을 채웠고, 풀속에서는 여치와 귀뚜라미 소리가 높아졌다.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뜨겁지만 밤의 풀숲에서는 어느새 가을이 시작되고 있다. 매미는 남은 여름을 불태워 울고, 귀뚜라미는 다가오는 계절을 먼저 알린다. 제비는 먼 강 남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고추잠자리들이 그 빈 하늘을 이어받는다.

계절에는 금을 그어 놓은 경계가 없다. 작은 생명들이 떠나고 나타나며 조금씩 다음 계절을 건네준다. 사람보다 먼저 여름의 끝을 알고, 사람보다 먼저 가을이 오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 셈이다.

창박의 꼬리 짧은 고추잠자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자연으로부터 처음 받아본 낯선 질문 하나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질문 덕분에 한동안 잊고 살았던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과 울음소리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 소리를 알아두고 그 변화를 궁금해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아직 계절의 순환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기고

‘뺨다방’ 막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들



어르신들에게는 그저 모처럼의 재미있는 외출이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손뼉 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흐른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화장지 몇 묶음, 라면 몇 봉지 같은 사은품도 손에 쥐어진다.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사람들과 어울려 웃을 수 있으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연스레 발길이 향한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 이른바 ‘뺨다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무료 공원과 즐길 거리를 경험한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은 소일거리 찾던 친구에 지인까지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구름처럼 모여든다. 방문판매업체가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는 것은 이때부터다. 효과를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건강식품부터 고가의 안마기, 심지어 수백만 원대 크루즈 여행 상품까지 내놓으며 어르신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 그 비싼 걸 왜 샀는지 하며 부모-자녀 간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금을 지출하거나, 구매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업체가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린 후에는 피해보상 받을 길이 더 막막해진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야 할 돈이 외지 업체로 빠져나가며 가족이나 어려운 농촌 상권을 갉아 먹기 때문이다.

필자가 13년 전 정계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비슷한 일로 시끄러웠다. 장계를 비롯해 계남·계북·전천 등 장수 북부지역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철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완강히 버텼다. 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고민한 끝에 출입구를 직접 몸으로 막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는 항의와 함께 거친 말을 듣기도 했다. 영업방해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출동하며 데모를 방불케 하는 육탄전까지 벌이는 등 보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업체는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일찍 철수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방문판매업체가 최근 장수군 읍내에 나타났다. 양손 가득 사은품을 들고 ‘뺨다방’을 나서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말려도 이곳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고가의 영양제나

안마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하루였을지 모른다.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사람들 온기가 그리웠던 것은 아닐까. 방문판매 문제는 개인의 소비를 넘어 어르신 복지, 가족관계,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다. 더 이상 합법적 영업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필자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선제적 점검과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다. 새로운 영업장이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피해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판매 방식, 신고·등록 여부, 계약서 교부 및 청약철회 안내 등 관계 법령 준수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경로당, 읍·면사무소,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확인된 사실과 피해 예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체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는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고가 상품 계약 시 확인 사항,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절차,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를 구별하고, 제품표시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는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의 질적인 확장이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되, 일방적 공급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묻고 반영해야 한다. 어르신 스스로 ‘가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조례 제정, 예방교육, 대체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조례”, “통영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충주시 시립정춘담다방’과 같은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등 참고하기에 좋은 사례들이 많다.

이제는 우리도 행정이 먼저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며, 의뢰가 감시하고 점검하는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다. “어머니, 그런 곳에 좀 가지 마세요”라고 나무라기 전에, “아버지, 그런 거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라고 핀잔을 주기 전에, 우리가 모두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뺨다방이 출몰할 때마다 13년 전처럼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장수군의회 임재성 의원

평론



곽보경

작가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감정을 전시하지 않는 사람

카뮈의 『이방인』을 다시 읽으며

단체 채팅방에 부고가 올라왔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지 몰랐다. 몇 줄을 썼다 지웠다. 슬프다는 말이 자꾸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결국 짧은 문장 하나를 남기고 화면을 껐다. 누군가 이 반응을 본다면 냉정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카뮈의 『이방인』도 그런 시선 속에 있다. 어머니가 죽었다. 그는 울지 않는다. 장례식 다음 날 여자와 해변에 가고,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는다. 소설은 이 장면들을 변명 없이 나열한다. 이 남자는 냉혈한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인간인가.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세계에 산다. 슬픔은 전시되어야 진짜로 인정받는다. 부고 아래 달리는 댓글들, 애도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쏟아지는 비난. 감정은 느끼는 것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울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슬프지 않다고 판단한다. 묘소가 살던 시대의 재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다. 소설 속 검사는 그의 무표정을 살인의 증거로 제시한다. 그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보다,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뤄진다.

카뮈가 그러려 한 것은 감정이 없는 인간이 아니다. 뫼르소는 태양의 열기를 느끼고, 바다 냄새를 맡고, 연인의 몸을 원한다. 그는 감각에 정직한 사람이다. 다만 사회가 요구하는 각본, 슬픔은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각본을 따르지 않을 뿐이다. 이 거부가 부조리다. 세상은 의미를 요구하고, 뫼르소는 거기 응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여기서 오늘의 우리를 겹쳐 본다. SNS의 타임라인은 감정의 무대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즉시 게시되어야 유효하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없는 감정으로 취급된다. 그날 화면 앞에서 머뭇거리던 순간, 나는 슬픔을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각본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카뮈를 통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와 감정을 느끼는 행위는 같은가.

뫼르소를 모델로 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의 태도를 낭만화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는 결국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사회는 각본을 벗어난 사람을 오래 두고 보지 않는다. 소설이 정말 무서운 지점은 여기다. 뫼르소가 죽인 사람보다, 그가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판의 중심이 된다. 판결은 행위가 아니라 태도에 내려진다.

백 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정교한 재판정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남기는 반응 하나하나를 기록되고,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와 노출된다. 침묵은 곧 그 기록의 공백으로 남는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에서 지워진다. 뫼르소의 시대에는 재판정 하나가 그를 심판했다면, 지금은 모두가 서로를 심판하는 재판정에 앉아 있다.

카뮈는 이 소설에 결론을 달지 않는다. 뫼르소는 사형 직전, 처형장에 물러를 군중의 중요 어린 합성을 상상하며 오히려 평온해진다. 세상과의 화해도, 세상에 대한 승리도 아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는다.

감정을 전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다. 다만 그 언어를 읽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전북의 소식은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구독신청 282-9603 기사제보 282-9600

